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입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 참배 및 기념식 참석
- 산재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일터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까지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4월 28일 두 번째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보라매공원 내)을 찾아 참배하고, 기념식(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을 개최하였다.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위령탑 참배와 기념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노사 단체 및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기념식에는 산재·유족단체와 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이 참석하여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더하고, 전 국민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어온 산재 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한편,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산재노동자에게 더 나은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 의지와 산재 예방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정부포상에서는 고압전기 감전 사고로 양팔 절단이라는 장애에도 예술가로 전향, 독창적인 예술 장르로 200회 이상 국내외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른 산재노동자들의 귀감이 된 석창우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에게 영예의 첫 동탑산업훈장이 전수되었다.

그리고 '74년 사업장 내 폭발사고로 인한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장애에도, 산재장애인재활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인협회 민동식 회장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노동부는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 다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는 모든 여정에 국가가 든든하게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참배 개요
- 2. 산업재해노동자의날 기념식 개요
- 3. 고용노동부 장관 기념사
- 4. 주요 정부포상 수상자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철홍 (044-202-8830)
		담당자	사무관	김군자 (044-202-8836)
			주무관	신동걸 (044-202-8837)



붙임1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 참배 개요

- 일 시: 2026. 4. 28. (화) 13:50~ 14:15
- 장 소: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 참 석 자
 -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실장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위원(잠정)
 - (노사단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 * 각 단체 사정으로 참석 여부 및 참석자 변동 가능성 있음
 - (산재단체) (사)중앙진폐재활협회 이희탁 회장, (사)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민동식 회장
 -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 진행 순서

* 언론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 13:50	위령탑 집결	
13:50 ~ 14:00 (10분)	참배 안내 및 도열	참배진행 안내
14:00 ~ 14:10 (10분)	헌화 및 분향	헌화, 분향 <장관, 기후위 위원장 등 전체>
14:10 ~ 14:11 (1분)	목례 및 묵념(합동)	단체 목례 및 참석자 합동 묵념
14:11 ~ 14:13 (2분)	방명록 작성	대표 2명(장관, 기후노동위 위원장)
14:13 ~ 14:15 (2분)	종료 및 환송	

붙임2**산업재해노동자의날 기념식 개요**

□ **일 시:** 2026. 4. 28. (화) 15:00~ 16:20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 서울 영등포구

□ **참 석 자**

○ (정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국회) 국회부의장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위원, 박정 위원, 김위상 위원, 박해철 위원, 곽상언 위원^{영상}, 박홍배 위원^{영상}, 김소희 위원, 이용우 위원, 김태선 위원^{영상}, 조지연 위원

*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실제 참석자는 달라질 수 있음

○ (노사 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산재단체) 산재유가족 단체 및 산재단체

○ (기타) 정부포상 대상자 및 그 가족, 노동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장, 근로복지공단 임원 및 노조 간부 등

□ **진행순서**

* 언론전체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1(1')	개식선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5:01 ~ 15:04(3')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1절), 묵념
15:04 ~ 15:08(4')	주요내빈 소개	
15:08 ~ 15:11(3')	기념사	장관
15:11 ~ 15:15(4')	경과보고 및 기념영상(2'30")	이사장(경과보고), 기념영상 송출
15:15 ~ 15:18(3')	추모사	유족단체 대표(이용관님)
15:18 ~ 15:48(30')	헌사	기후노동위 위원,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 및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15:48 ~ 16:13(25')	유공자 포상	장관 유공자영상 ²⁾ 송출 후 수상자 호명 *전수자 21명
16:13 ~ 16:20(7')	추모공연 및 퍼포먼스	- 가수 '하림(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 내빈참여 퍼포먼스
16:20 ~	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산재노동자와 가족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를 맞이하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입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故 김용균님의 어머니 이신 김미숙님,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이신 이용관님, 한국산재증양법인단체연합 진명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재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국회 일정으로 아래 국회의원 참석자 변동 가능 *

오늘 국회 본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김주영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영상으로 헌사를 보내 주신

곽상언, 박홍배, 김태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님,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를 지켜주시는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개요]

1996년 국제노동기구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진행해 온
추모 행사를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 2024년 김주영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2025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드립니다.

[포상자 격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유공으로
영예로운 첫 훈장을 받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석창우 회장님,
산업재해로 생긴 장애를 극복하여 세계적인 수묵크로키
예술가로 자리매김 하셨습니다.

첫 포장을 받는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민동식 회장님,
산재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외 포상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2점, 국무총리 3점, 장관 20점, 총 27점

[정부 정책 방향]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사람 목숨 귀중한 줄 알아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산재 근절 메시지를 필두로
산업안전을 위해 온 나라가 함께 나서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다행스럽게도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었습니다('26.4.14, 국무회의).

* '26.1분기 사고사망자수 113명, 전년동기 대비 24명(17.5%) 감소

그 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변화를 이뤄냈다면,
이제는 변화의 흐름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가 산업재해예방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는 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가 참여 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시대에 맞는 안전 패러다임을 논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를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삶입니다.

정부는 산재노동자가 하루 빨리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나아가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히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자와 가족이 겪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을 기억하고, 반성을 통해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새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훈장****동탑****석창우****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 '84년 산업재해로 양팔절단(장해1급), 이를 극복하고 동양 서예와 서양 크로키를 결합한 '수묵크로키'를 창시, 세계 40여 회 개인전과 소치·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 등 200회 이상 퍼포먼스 시연하는 등 40년 이상 창작 활동을 지속
-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을 역임하며, 국가기념일 퍼포먼스와 작품 기증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복귀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활 의지 고취에 중추적 역할 수행

산업포장**(사)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회장****민동식**

- '74년 사업장내 폭발사고로 인한 좌측 다리 절단(장해5급)
'91년부터 산재단체를 설립 또는 지원하며 산재보험·산재병원 민영화 반대 투쟁, 산재전문 언론사 창간·운영, 순직산재노동자 추모제와 예방캠페인 운영 등 산재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수행
- '03년부터 인천산업재해인협회장 및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산재노동자 고용 창출과 재활·자활 프로그램, 힐링 여행, 정서 함양 활동 등을 지속하며 산재 및 일반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장애인 사회 참여와 자립의 희망을 확대하는 데 헌신

대통령 표창

* '가나다' 순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회장

김안배

- '95년 건설현장에서 산재(장해6급), '98년부터 울산 인권협의회 의장, 노동복지신문 간부,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및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상담센터 운영, 산재예방 캠페인, 정책 제안과 국제교류를 통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발전에 기여
- 특히 산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위안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산재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재활과 자립, 사회참여 확대를 이끌며 장애인 인권 향상의 모범적 역할 수행

두손병원 병원장

황종익

- 국내 수부외과와 미세접합수술 분야의 선구자, '94년 안산 두손병원을 개원하여 31년간 3만회 이상의 고난도 수술을 성공시키며 산재노동자의 장애 예방과 신체 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
- 두손병원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연평균 4만 1,581명의 외래 환자와 1만 8,422명의 입원 환자를 치료하며,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외국인 산재환자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모든 산재노동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국무총리 표창

* '가나다' 순

인사혁신처 공업사무관

신인교

- '08년 하반신 마비 장애 1급 판정, 체계적인 재활과 치료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다른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복귀를 지원, 이후 국가공무원 입직
- 산재노동자 멘토링 참여,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 발생 예방 강사 활동을 통하여 산재노동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

한국폴리텍1대학 교수

어준혁

- '18년 추락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극복, 재활과 학업을 병행하여 기능장 3관왕과 공학박사 학위 취득한 불굴의 기술인
- 한국폴리텍1대학 최연소 전임교수 임용, 특허개발, 후학 양성 및 기술안전 교육으로 산업현장과 교육계를 잇는 역할 수행
- 1,000시간이 넘는 봉사와 멘토링을 통해 산재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가치로 환원, 산재노동자에게 희망과 도전의 상징적 모델로 평가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

최성복

- '83년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 장애, 끈질긴 노력과 의자로 재활에 성공
- 한국산업재해근로자협회 민원실장,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산재 정책자문위원 활동으로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
- '04년부터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산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정서적 재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복귀 지원 중